

새롭게 신규양돈장을 개척하고 양돈의 꿈을 키워가는 경북 영주의 젊은 양돈인

취재 — 배승한

대한양돈협회에서 조사·발표한 「2005 전업 양돈농가 경영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후계자 여부에 대해 500두 이상의 전업양돈농가 487명중 115명인 23.6%만 후계자가 있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76.4%는 없거나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번 보고서는 그 원인을 국내 양돈산업이 환경문제 등 각종 규제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50~60대 1세대 양돈인들과 2세대들의 교체가 일어나는 지금, 양돈 후계자 여부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양돈 산업의 분위기속에서 경북 영주에서 30세의 나이로 새롭게 농장을 시작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림농장 김동건 사장을 만나보았다.

■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신규농장 설립

김동건 사장은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졸업한 후 양돈 전문 계열회사인 (주)선진 한마을에서 약 3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선진 모돈계열팀과 선진 GGP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양돈장 모돈관리와 농장경영 기법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초부터 개인 농장을 경영하겠다는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농장이 위치할 장소를 물색했고, 김동건 사장의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사업허가를 신청해 지금 농장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지역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중요

처음 사업허가서를 받기 전 주위 민원을 생각한 김동건 사장은 농장 주변 100가구로부터 90가구, 즉 90%의 동의서를 얻어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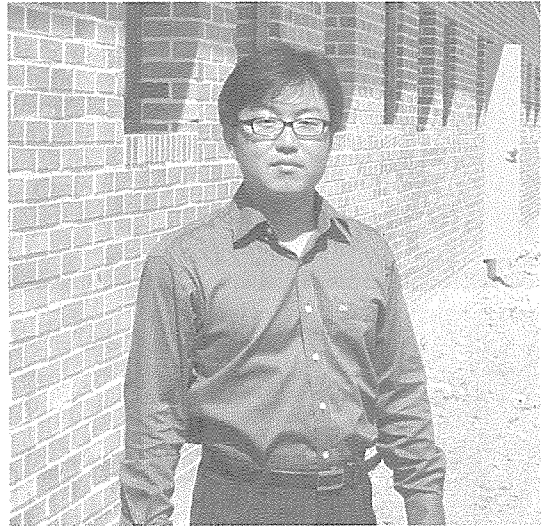
“그동안 다른 농장을 둘러보고 간접경험하면서 느낀점은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찾아가 양돈장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양돈장 공사가 시작되어 깔끔한 건물에 현대식 시설이 들어서자 처음 반대했던 몇몇 분들도 건물 허가에 동의해 주셨다.

또한, “지역에서 아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2명을 직원으로 채용하자 주위의 시선이 많이 좋아졌다”라며 “선립농장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적 양돈장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김동건 사장은 작년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계획서에 제시된 돈가와 생산비는 최대한 어려운 시기를 기준으로 정해놓았다. 이렇게 해야지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평상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 철저한 주간관리로 운영되는 분만사, 이유돈사

선립농장은 선진 GP농장으로 모든 500두(랜드레이스 250두, 요크셔 250두)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kg 자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모돈회전율 2.3회전, 산자수 10두, 이유두수 9.3두, 모돈교체율 38%를 목표로 하고 주간 분만복수는 22복, 월 분만복수는 96복으로 계획하고 있다. 모든 구간의 분만틀, 스톨, 이유돈사 등은 철저한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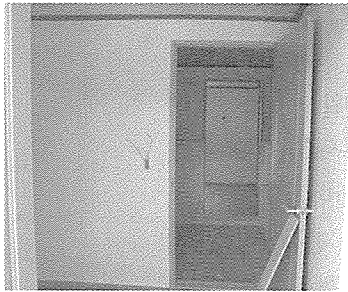
▲ 선립농장 김동건 사장

관리에 의해 계획되고 지어져 있다.

분만사는 총 5개의 방으로 각 방은 총 22개의 분만틀이 준비되어 있다. 임신말기 모돈은 구충을 실시하고 목욕을 한 후, 분만 일주일 전 22복 그대로 한 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서 3주간, 총 21일 동안 포유를 시킨 후, 이유를 실시한다. 분만사에는 별도로 11개의 분만틀이 준비된 분만 방이 1개가 더 있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여유분으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유시키고 난 방은 1주일간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분만 모돈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유사는 총 5개방으로 1방에 1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1개방은 격리환돈사로 쓰여질 계획이며, 나머지 4개방에서 총 3주 반 동안 이유돈들이 있을 예정이다.

분만사에서 이유된 자돈들은 암수로 구분된 뒤 크기별로 각각 방에 18~20두씩 45일령에서 47일령까지 있을 계획이며 다시 후기 자돈사에 그 그룹 그대로 들어갈 예정이다. 후기 자돈사에는 자돈이 70일령까지 있을 예정이며 이 일령 30kg에



◀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차단방역 시설을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 직원복지향상을 위해 2가구가 살 수 있는 직원 사택도 지어져 있었다.

도달하면 판매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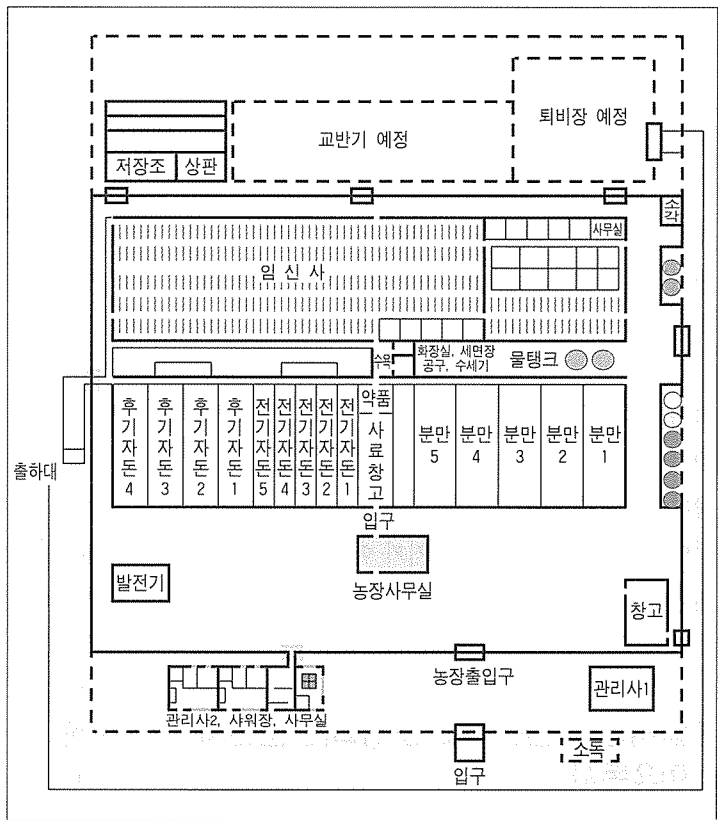
■ 임신사 관리계획

임신기간 115일중 분만사에 들어가 는 7일을 제외하면 총 108일, 약 15~16주를 임신사에서 모돈들이 있을 예정이다. 임신사에는 26개의 스톨(임신돈을 22두로 계산하였으나 불임돈과 재발정 모돈수 포함)이 하나의 그룹으로 총 16개의 그룹이 있다.

즉 임신사에서도 철저한 주간관리에 의한 관리가 있을 것이다. 처음 이유시킨 모돈들은 도태될 모돈과 구분된 뒤 5~6마리씩 공동으로 한 방에 있을 예정이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환경의 변화는 모돈의 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김동건 사장의 설명이다.

이후 모돈들은 그룹별로 스톨에 들어가 분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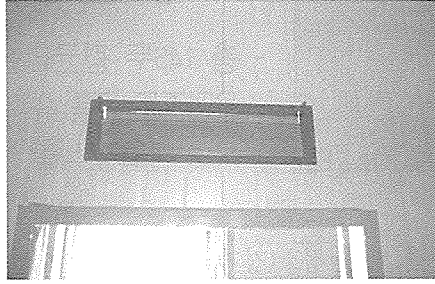
〈선림농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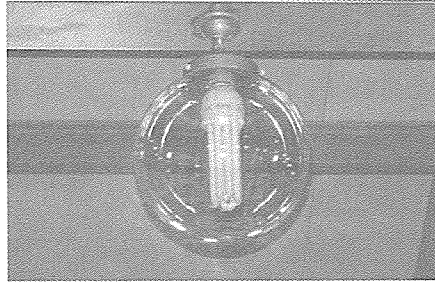
까지 대기한다.

■ 향후계획

“지역사회에 1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약 하나마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농장경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선림농장을 전국



◀ 임신상의 양쪽 덕트를 통해 웬에 의해 공기가 들어오고 뒤쪽으로 강제배기가 된다. 문위쪽에 설치된 보조입기구는 돈사의 불균형한 공기압력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 모든 전선은 알루미늄관으로 덮혀 있어 화재위험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 전구가 유리로 덮혀 있어 빛의 확산효과를 최대화시키고 있다.



▲ 이유시킨 모돈들은 도태될 모돈과 구분된 뒤 5~6마리씩 공동으로 한 방에 있을 예정이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환경의 변화는 모돈의 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중부대기 스텔위에 설치된 전등. 밝은 조명을 비춰주어 임신대기돈들이 정상적인 발정이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고의 농장을 만들것이다”라고 김동건 사장은 강한 자신감을 표한다.

“농장 계획은 2016년까지이다. 처음 5~6년은 충분치 못한 경험, 자금 문제 등으로 힘들 것이지만 농장경영 수업비라 생각하겠다. 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김동건 사장은 요즘 10년을 앞서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한다.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모습에서 경영인의 진지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양돈장 경영을 떠나, 젊은 나이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실히 준비하고 시행해나가는 김동건 사장의 모습은, 맡겨진 일을 쉽게 포기해 버리고 자신의 삶에 쉽게 안주해 버리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시사해 주는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선림농장을 뒤로했다. **양돈**